

## 경험토대 위 후배양성에 큰 보람 지난 1월 안산상공회의소 경영대상 수상

신재성 / 울촌화학(주) 부사장



▲ 울촌화학(주) 신재성 부사장

**지난** 1월26일 안산상공회의소에서 열렸던 제 6회 안산상공대상은 매년 상공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명예로운 상으로 꼽히고 있다.

이번이 여섯번째였던 이 행사는 단순히 상공업 진흥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기업이 세계일류기업과의 경쟁에서 앞서 가는 경영, 기술, 근로의 질적향상을 이루기 위함과 동시에 이들 세분야에서 일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숨은 일꾼을 발굴, 포상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을 귀감으로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기업의 세계화를 추진하여 안산이 상공업 도시라는 전통성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것이 이 상의 의의다.

이날 기업경영에 있어 연구지도 및 경영개선에 기여한 경영대상의 주인공으로 울촌화학 주식회사 신재성 부사장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1967년 부산대학교 화공과를 졸업하고 76년 지금의 울촌화학의 전신인 울촌인쇄(주)에 입사하여 20여년간 연포장기술발전의 초석을 다져온 그는 이제 업계의 어른으로써 많은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있다.

“이런 큰상을 받고보니 그간의 일들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나 상이라는 것이 또 한편으로 큰 부담을 느끼게 해 다시한번 제 스스로 긴장할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라고 수상소감을 피력하는 신 부사장은 그의 겸손과는 달리 이미 업계에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론과 지도력을 인정받

**“연포장업계를 떠날때쯤 그간 현장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한 회고록 성격의 책자발간으로 현장에서의 문제점 해결방법과 경영방식을 업계에 소개해 도움을 주고 싶은 것이 소망 ...”**

고있다.

올해 60세로 경남 언양출신인 그는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다. 더욱이 경영에 있어 그의 추진력은 이미 알려져 있는데 특히 주인의식, 자조, 자신을 경영이념으로 삼고 세계 일류기업을 창조하기 위해 21세기를 제시하는 경영전략으로 지난해에도 높은 성장율을 기록했다.

또한 기술개발에도 역점을 두어 무광택 적층필름 개발과 통기성 쌀봉투 개발, PET필름 대체 BOPP필름 적용 포장재 및 카톤 라미네이팅용 필름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등 고기능 특수필름과 포장재를 개발을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의회획득과 수입대체 효과를 거두었다. 더욱이 최근에는 환경친화적 상품을 개발하여 환경문제 해결에도 공헌하고 있다.

“기업 경영에 있어 근로자들에 대한 배려는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포장업계도 3D업종으로 종업원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데 저희의 경우는 특히 무주택 근로자에게 총 6억원의 주택자금을 조성하여 융자해 주고, 사우회에 3억5천만원을 출현하여 경조사에 지원하는 등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신 부사장은 “그래서 88년 노조가 결성된후 단한번도 노사분규 없는 무분규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회사내적인 활동외에도 인쇄연구소 기술분과위원인 동시에 한국포장기술인협회의 고문,

ISO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활발한 대외활동을 하기도 했으며 지난 93년에는 인쇄연합회로부터 대한민국인쇄문화상을 수상한 경험도 있다.

또한 연포장업계 전반적으로 기술책자가 없는 것을 안타까워 하며 ‘그라비아 인쇄와 연포장기술’이라는 책자를 발간하기도 했다.

현역 화가로 오는 5월 15일 개인전을 계획하고 있는 부인 최정혜 여사와 2남1녀를 둔 가정의 가장이기도 한 신재성 부사장은 현재 연포장업계 실무자들중에 재목이 몇 있음이 믿음직스럽고 앞으로 그들을 지도하는데 보람을 느끼고 싶다고 말을 맺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가 연포장업계를 떠나면 그간 현장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한 회고록 성격의 책자를 발간하고 싶다고 한다. 현장에서 문제점을 해결했던 풍부한 경험, 경영방식을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은 것이 그의 소망이라 한다.

기업을 이끌어나가는 실질적인 원동력은 구성원들 개개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지만 믿음직한 버팀목이 바로 그 구성원들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 될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ko**

이선하기자